

문화기획 '라우'는 '꼬마 농부 상상학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룹이다. 직원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김가연 대표(오른쪽)와 이선화씨 2명으로 단출하다. /니명주기자 mjna@



소나무·매화·대나무... 歲寒三友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31일까지 문봉선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는 다음달 31일까지 한국화가 문봉선 홍익대 교수를 초대해 '세한삼우(歲寒三友)'전을 연다. 세한삼우는 추운 겨울을 오롯이 버텨내는 선비들의 세 벗이란 뜻으로 각각 소나무와 매화, 대나무를 일컫는다. 각각 절개와 고결, 정절을 상징해 오랜 세월 동양화의 화제(畫題)로 사랑받아왔다. 세한도(歲寒圖), 삼우도(三友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완성도 높은 한국화 작품을 위해 서예와 조각 분야까지 섭렵한 문 교수는 전시에서 '설송'과 '종죽'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문 교수는 오랜 세월 자신의 벗이기도 했던 세한삼우를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해 담백하게 그려낸다. 문 교수의 그림이 관람객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태어나 홍익대의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문 교수는 중국남경예술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모교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새로그린 매, 난, 국, 죽'(전 2권·2006년), '설악산'(1996년) 등이 있다. 문의 062-383-00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꼬마농부·꼬마철학자·꼬마시인... 꿈꾸는 꼬마들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6) 문화기획 '라우'

지역자원 활용 어린이 콘텐츠 집중 과학+문화 '무한상상실' 운영 '꼬마 000 상상학교' 시리즈 확대 주민과 소통, 비결은 오픈마인드

광주시 광산구 옛 분림중학교 자리에 '꼬마 농부 상상학교'(cafe.naver.com/kids-farmers)가 있다. 문화 기획 '라우'와 광주 시 농민회 등 주민들이 결합한 더하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다. 아이들은 꿈꿨던 꼬마농부 '꼬사이', 오여서, 구마할배, 어니 언니, 밀맨 등 야채 캐릭터들과 상상 요리사, 꼬마 농부의 하루 등에 참여한다.

'라우'는 지난 2012년 3월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 팀이다. 회사 이름은 전라도 사투리 어미에서 따왔다.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담은 단어이기도 하고, 일의 끝맺음까지 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 김가연(34)씨는 조선대 신방과 출신으로 2004년부터 지역 방송사 구성작가로 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매너리즘도 느꼈다.

"한계에 부딪쳐 돌파구를 모색한 게 지난 2009년이었죠. 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죠. 그러던 중 공연과 캠프를 기획하게 됐고 TV에서 가요쇼 등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어 문화 기획일에 조금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대로 공부하자 싶어 전남대 문화전문 대학원에 들어갔다. 졸업 후 청년 창조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대학원 후배 이선화(29)씨와 동감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방송작가일은 지금도 하고 있다. KBC에서 시حت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

들의 신선한 에너지와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도움이 된다.

'라우'의 모토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콘텐츠'다. 공동체 파괴, 가정 파괴의 시대에 단발적인 아이들 교육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칭찬해 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스킨십을 해주면서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된 이유다.

'꼬마 상상학교' 시리즈는 라우의 대표 기획물이다.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이 주는 느낌. 우선 자기와 익숙해진 공간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초반에는 낯설지도 모르지만, 낯선 공간에서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꼬마 농부학교다. 이어 광산구의 자원들을 활용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는 월봉서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철학자의 네모'는 지혜의 부엉이, 어제의 씨앗, 감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등 미션을 완수하는 형식으로 꾸려진다.

올해 시작하는 '꼬마 시인 상상학교'는 역시 광산구에 자리한 용아 박물관 생각을 활용할 예정이다. 세 곳의 상상학교를 연결하면 멋진 문화 트라이앵글이 된다.

'라우'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신창동주민센터와 함께 과학과 문화

가 결합된 '무한상상실'도 운영중이다. 과학관이 아닌 동사무소가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건 전국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

김 대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파트너인 광산구청과 주민들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로가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 소통이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주민과 함께 어린이 축제를 기획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고 수익금으로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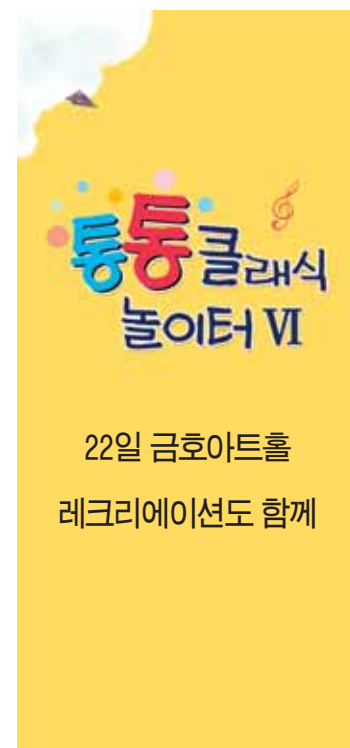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건 오픈 마인드죠.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주민들의 거주지로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면 '해내야' 하지만, 긴 호흡을 갖고 관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오래 가요. 특히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지금은 난타를 배우고 계시죠."

김 대표는 사람 만나기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자료를 들여다 보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장소에 가 놀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철학자 상상학교'도 도시락 싸서 월봉서원에 놀러갔다 마루에 누워 음악을 들던 중 떠올린 프로그램이다.

김 대표의 꿈은 지역자원을 결합해 '꼬마 000 상상학교'를 확대하는 거다. 광산구를 넘어 광주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도 희망사항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여러분 클래식 어렵지 않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클래식과 친해지길 바란다. 급한 마음에 이런 저런 콘서트에 데려가보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음악회는 좋지 않은 기억만 남겨준다.

그런 점에서 유스퀘어문화관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통통클래식 놀이터'는 부모들이 반가워할만한 음악회다.

통통클래식 놀이터 6번째 시즌이 2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등을 들려주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을 함께 부른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동계 올림픽에서 멋진 연기를 펼친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 음악을 감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오펜바흐의 '강강', '카르멘 관타지' 등을 김연아의 연기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오혜은(피아노), 송성아(플루트), 박효은(첼로)씨와 남성 4중창단(이건, 장재현, 박관희, 박성철)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 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센터 080-234-6588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